

생각이 움직이면 자기 세계를 바꾼다

유정수 교장선생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지를 발간하게 이르렀습니다. 학교 전통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교지에 실린 한편의 내용과 구절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뜻과 정성 그리고 추억을 우리들은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좀 더 나은 자기 계발과 미래로의 힘찬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지 발간을 즈음하여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움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성실하고 봉사하며 효행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보다 성실함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정해져 내려오는 교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은 학생은 기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도록 교육받는 것도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과 어떤 상황에서 논리적인가, 옳은가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최선의 해결책과 개선점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의 마음과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젊음의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즉 배려의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배려하는 마음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서로 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기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면 행복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은 생각이 움직이면 자신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으며 습관은 성격을 바꾸고 성격은 운명을 바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려와 소통 속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젊은 시야를 넓혀서 자기 계발은 물론 미래로 발돋움하기를 교지 발간과 더불어 기원합니다.